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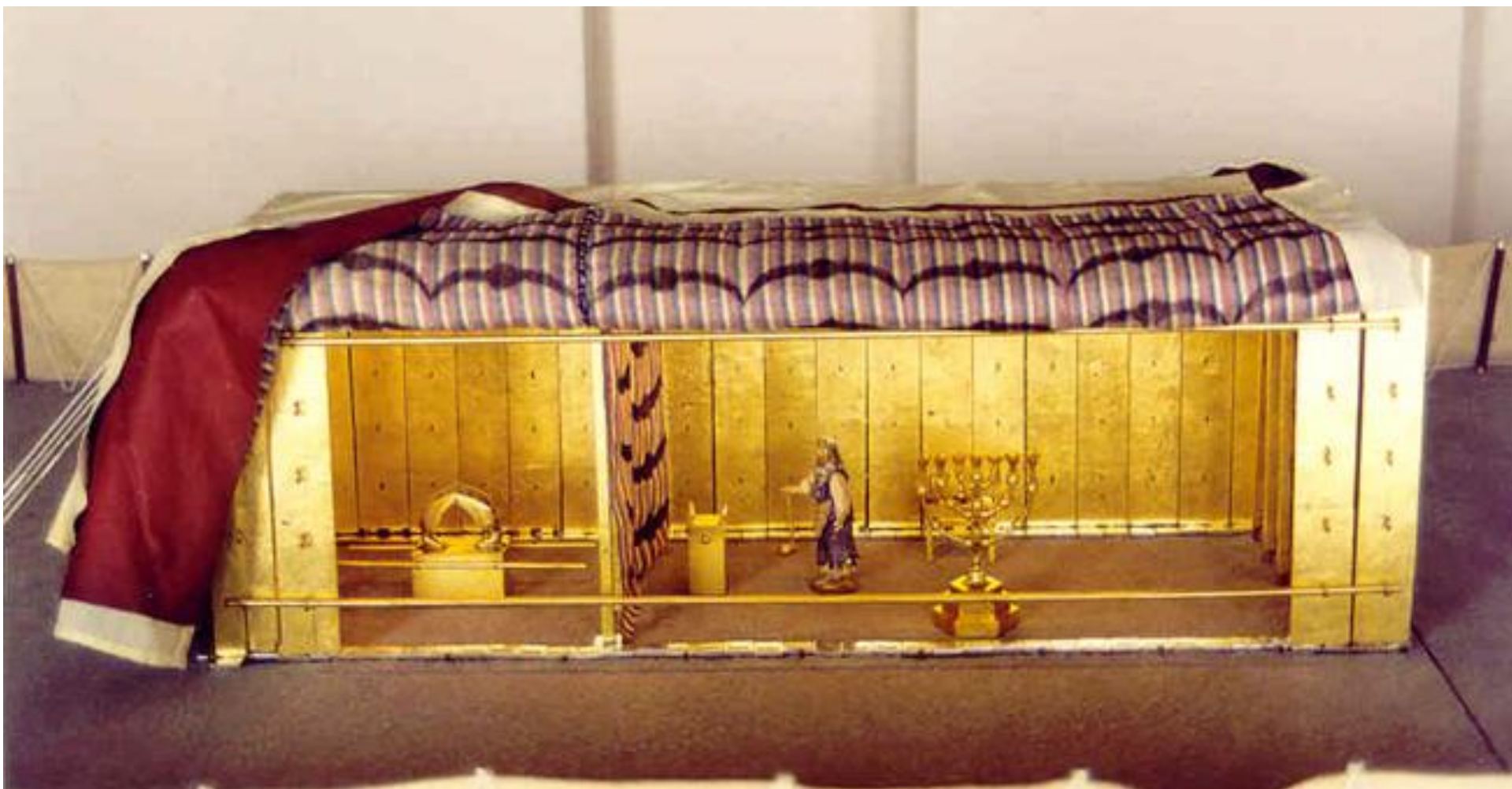
Sermon

“그리스도의 피” (The Blood of Christ)



(히 9:9, 새번역)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Heb 9:9, ESV) (which is symbolic for the present age). According to this arrangement, gifts and sacrifices are offered that cannot perfect the conscience of the worshiper,



www.glencairnmuseum.org

1.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
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11-12).

(히 9:11, 새번역)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Heb 9:11, ESV) But when Christ appeared as a high priest of the good things that have come, then through the greater and more perfect tent (not made with hands, that is, not of this creation)

(히 9:12, 새번역)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써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Heb 9:12, ESV) he entered once for all into the holy places, not by means of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but by means of his own blood, thus securing an eternal redemption.

“보혈(寶血)”

보배로운 피

인류의 죄를 구속(救贖)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

II.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13-14).

(히 9:13, 새번역)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Heb 9:13, ESV) For if the blood of
goats and bulls, and the sprinkling
of defiled persons with the ashes of
a heifer, sanctify for the purification
of the flesh,

(히 9:14, 새번역)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Heb 9:14, ESV) how much more will the blood of Christ, who through the eternal Spirit offered himself without blemish to God, purify our conscience from dead works to serve the living God.

(히 8:12, 새번역)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Heb 8:12, ESV) For I will be merciful toward their iniquities, and I will remember their sins no more."

(사 43:25, 새번역) 그러나 나는 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Is 43:25, ESV) "I, I am he who blots out your transgressions for my own sake, and I will not remember your sins."

Ⅲ. 그리스도의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15-22).

(히 9:15, 새번역)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Heb 9:15, ESV) Therefore he is the mediator of a new covenant, so that those who are called may receive the promised eternal inheritance, since a death has occurred that redeems them from the transgressions committed under the first covenant.

언약 = 유언

(히 9:16, 새번역)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Heb 9:16, ESV) For where a will is involved, the death of the one who made it must be established.

(히 9:17, 새번역)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Heb 9:17, ESV) For a will takes effect only at death, since it is not in force as long as the one who made it is alive.

(히 9:18, 새번역) 이렇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Heb 9:18, ESV) Therefore not even the first covenant was inaugurated without blood.

(행 17:26, 새번역)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Ac 17:26, ESV) And he made from one
man every nation of mankind to live on
all the face of the earth, having
determined allotted periods and the
boundaries of their dwelling place,

(롬 3:10,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Rm 3:10, ESV) as it is written:
"None is righteous, no, not one;

(롬 5:12, 새번역)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Rm 5:12, ESV) Therefore, just as sin came into the world through one man,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히 9:22, 새번역)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Heb 9:22, ESV) Indeed, under the law almost everything is purified with blood, and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of sins.

(히 4:15, 새번역)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Heb 4:15, ESV)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in every respect has been tempted as we are, yet without sin.